

	<h1>중국(상하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h1>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전택규 소장
		일시	2025. 4.

CEPA Insight

- 올해 1~2월 중국 경제 안정적 성장
- 中 지난해 가전제품 수출 '역대 최고'...전년比 15% ↑
- 중국 2024년 수입액 기준 20대 도시 발표...베이징시 1위
- 중국과 한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 열다: RCEP·공급망·전자상거래 등 다각적 기회 확대

■ 1~2월 중국 경제 안정적 성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로 올해 1~2월 공업 및 서비스업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 소비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신질적 생산력이 강화됨.
- (공업) 규모(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9%, 이 중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9%, 장비제조업과 첨단제조업 증가율은 각각 10.6%, 9.1% 달성
-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5.6% 증가하여 전년 대비 0.4%p 상승
-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4.0% 증가한 8조 3,731억 위안으로 집계. 통신기기, 문화사무용품, 가구, 가전·음향기기 판매액은 각각 26.2%, 21.8%, 11.7%, 10.9% 증가
 -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7.3% 증가한 2조 2,763억 위안이며, 이 중 상품 소매판매액은 5.0% 증가한 1조 8,633억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22.3%를 차지

- (투자) 고정자산 투자는 4.1% 증가한 5조 2,619억 위안, 이 중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8.4%에 달함
- (무역) 화물 수출입 총액은 1.2% 감소한 6조 5,363억 위안, 이 중 수출은 3.4% 증가한 3조 8,812억 위안, 수입은 7.3% 감소한 2조 6,551억 위안임
-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0.1% 하락, 1월은 0.5% 상승하였으나 2월은 0.7% 하락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ceweekly.cn/news/important/2025/0317/469348.html>

■ 中 지난해 가전제품 수출 '역대 최고'...전년비 15% ↑

- 중국기전상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중국 가전(백색가전) 수출 연간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가전(백색가전)제품 누적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4.8% 급증한 1286억 4000만 달러(187조 3,500억원)로 4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앞서 제12차,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가전 수출액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6~7%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5%에 달하는 성장률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 저우난(周南) 중국기계전자제품 수출입상회 가전 분회 사무총장은 "중국 가전 수출은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형 산업으로 수출액이 100~200억 달러가 증가한 것과 같은 성장률 15%는 매우 뛰어난 실적"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가전 수출 급증은 대형가전이 견인했다. 중국기전상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수출량이 모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에어컨 수출량은 8,500만 대로 최근 몇 년간 한 자릿수 증가율에서 28.3%까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고 수출량도 전년 대비 23.4% 증가한 2,630만 대로 집계됐다.
- 다만 같은 기간 에어컨(6,048만 대)과 세탁기(3,285만 대)는 각각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17.9%, 14.2% 증가율을 기록했다.

- 저우난 사무총장은 지난해 중국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지난해 글로벌 가전 시장의 회복으로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등 신흥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나타냈고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과 인플레이션 이후 미국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3549032787736965&wfr=spider&for=pc>

■ 중국 2024년 수입액 기준 20대 도시 발표..베이징시 1위

- 중국 지역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수입액 기준 20대 도시 중 1~3위는 베이징시(3조 18억 위안), 상하이시(2조 4,505억 위안), 선전시(1조 6,926억 위안)로 나타남
- 수입 증가율이 높은 도시는 청두(27.1%), 선전(19.6%), 둥관(14.5%)이고, 수입 감소폭이 큰 도시는 난징(△14.3%), 샤먼(△13.0%), 충칭(△11.5%) 등임
- 수입 상위 도시는 상하이, 선전, 닝보 등 연해도시로 항만을 활용한 무역 이점이 큰 것으로 나타남. 내륙 도시 중에는 베이징시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입 규모를 기록
- 각 도시의 수입 실적은 그 도시의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정치, 문화 중심지로서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큼. 반면에 우시(无锡)시의 급속한 성장은 특정 산업 발전 수요와 관련이 있음. 또는 국가의 무역 정책, 지역 경제 발전 정책 등도 도시의 수입 실적에 영향을 미침

〈2024년 수입액 기준 20대 도시〉

순위	도시명	수입(억 위안)	증감률(%)	순위	도시명	수입(억 위안)	증감률(%)
1	베이징	30,018	△1.4	11	청 두	3,748	27.1
2	상하이	24,505	△1.0	12	우 시	2,673	11.0
3	선 전	16,926	19.6	13	항저우	2,600	△3.5
4	쑤저우	9,824	4.1	14	다 렌	2,297	△7.2
5	둥 관	4,983	14.5	15	충 칭	2,081	△11.5
6	닝 보	4,747	5.6	16	정저우	2,015	3.1
7	샤 먼	4,346	△13.0	17	난 징	1,996	△14.3
8	광저우	4,233	△4.0	18	옌타이	1,950	1.8
9	텐 진	4,202	△4.0	19	포 산	1,123	3.0
10	칭다오	3,798	△6.2	20	진 화	1,076	0.9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2142456504331080&wfr=spider&for=pc>

■ 중국과 한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 열다. RCEP·공급망·전자상거래 등 다각적 기회 확대

- 지역 경제 통합: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지고 전체 수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모두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RCEP라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제도화되고 규범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지방 간 경제무역 협력과 중국 각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의 매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냈다.
- 공급망 협력: 한국 신흥 기업의 중국과 협력 의지는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 수도권, 대만구(大湾区) 경제권 등 구역에서 한국 공식 기관이 중국 파트너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새로운 생산력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부터 뚜렷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견고한 공급망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중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풍부한 상품 선택, 편리한 쇼핑 경험,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중국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한중 양국의 무역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지속해서 발

전함에 따라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제품 시장: 중국 기업들도 한국 전자제품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샤오미 회사는 한국에 법인인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리아를 설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임. 또한, 중국 가전 제조업체 스톤 테크놀로지는 롯데, 현대 등 한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하여 고급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TV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 디지털 경제 협력: 양국은 디지털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 세계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중장기 발전 전략에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생산력을 육성하여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제재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첨단 제조업 발전과 녹색 발전을 큰 힘으로 추진하고 전략적 첨단 기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생물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제조 설비를 발전시키고 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1861381334425524&wfr=spider&for=pc>